



2000년
9월 15일
제 25 호

이 가을에 일곱살을...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창간
2주년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창간2주년을 맞아 교회들의 희생적 후원있어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성시화 운동의 촉매가 되기를



임택목 목사
춘천성시감리교회 담임
춘천성시본부 대표회장

월간 춘천성시 신문창간 2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돌에 불과한 본지가 체제나 내용에 있어 기성신문 못지않게 성장해간 것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의 노고의 결실이라 보고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신문이 더욱 성장하여 성시화의 힘을 결집하고, 성시화의 꿈을 밝혀 기독교인의 기도대목을 제시하고 진 시민의 신자화, 교회의 부흥성장, 교회와 선교단체 연합의 기고, 기독교문화 정착을 위한 신도들은 눈과 입의 사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창간 두 돌을 맞이하여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한다면 첫째,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프로필, 간단한 성경난제 해설, 그 밖의 내용 등... 독자가 보고싶은 신문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시화운동의 불을 붙이는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시신문이 성시화운동을 알리는 일과 성시화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작용을 해 왔으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해서 성시화운동을 알려줌으로 독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고 이 운동이 지역을 초월하여 확산될 것 같습니다.

셋째, 기독교 연합운동의 연결고리가 되고 교향수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시화운동은 교회들과 선교단체,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연합하여 힘을 합쳐 밀고 나갈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흩어진 힘을 모으고 연합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성시

신문의 몫이라고 봅니다. 넷째, 양질의 신문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희생적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간행되고 있는 성시신문은 일반규격 4면 크기입니다. 춘천에 유일한 기독교신문으로 다양한 읽을거리를 주문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조금씩만 후원한다면 신문은 성시신문으로 발전되고 성시화사업도 활기차게 추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지로, 복음실은 신문으로, 성시화운동의 결집지가 될 춘천성시신문이 더욱 알차게 성장해서 춘천 뿐 아니라, 강원도내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 모든 도시에서... 성시화운동의 불을 붙이는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춘천성시본부 제5차 정기총회 개최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 장로)는 제5차 정기총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조직장비 등 사업 계획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성시본부 대표회장(기독교연합회장 황영찬목사)의 주재로 진행되며 사업계획 승인 등은 본부장이 주재하게 된다. 춘천성시본부는 96년9월19일 기독교연합회에 의해서 창립되었으며 월도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으로 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월도비전 건물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시본부 사무와 기독교연합회, 장로연합회, 직장선교연합회의 일부 사무를 맡고있다. 성시화운동에 앞장 선 사역자들은 모두가 무보수 봉사자로서 춘천시민은 한 사람도 지극히 못하게 하려는 사명감으로 회비와 헌금을 드리면

서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성시운동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마28:19-20)을 이룰기 위한 일로써 기독교인이란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금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해서 지엄적인 생각들을 분석하고 참여할 것을 성시사역자들은 열망하고있다.

춘천성시신문 창간 두 돌을 축하하며



황영춘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침례교회 담임

춘천성시신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창간된 이래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성시신문은 성시운동의 홍보와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시운동의 건인자 역할을 해 왔다.성시신문은 춘천의 성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성시운동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열매 중 하나가 지난 6월20일에 창간된 대구경북 성시신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시신문이 춘천지역교회의 연합과 선교를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성시신문의 목표가 여기에 머물러

서는 안된다. 성시신문은 성시운동의 선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선교 지향적인 정론을 펼쳐 성시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무엇보다도 춘천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성시운동의 핵심요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21세기에 걸맞는 기독교인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성시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창간 두 돌을 맞는 춘천성시신문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한국의 예루살렘을 꿈꾸는 안양성시화 태동

- 여신도들 기도중에 계시, 기독교연합회 지지로 본격전개 -

경기도 안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이며 공업도시로써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4개 신학대학이 있는 기독교 신앙특성을 가지고 있다. 8월28일 안양성시화를 위한 기도모임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은 춘천성시본부 관계자들은 안양성시화운동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안양은 수도 서울의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서 서울 진입의 요고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안양시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신도들의 기도모임이 지난 7월 조직되었고 동소식을 겸한 안양기독교연합회는 4월5일 부활절예배에서 "안양성시화운동"

추진을 공표했다. 춘천 청주 대전 인천 대구 부산성시화운동에 이어 7번째로 일어날 안양성시화운동을 주시하여 전국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여신도들의 기도중에 "성시화"란 계시의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성시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고심하던 중에 춘천성시화운동의 소식을 듣고 대표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대담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머지않아 안양시에도 성시화운동이 가시화되고 전국 7개도시에서 성시화운동이 경쟁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춘천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축하합니다.



백세진 장로
춘천시장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춘천을 비롯한 국내외의 주요 도시의 성시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춘천에서 탄생한 춘천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시신문을 통하여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일케하는데 전력해 주신 춘천성시신문 발행인 조남진장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 춘천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발전전을 염원하는 성시신문을 비롯한 기독교인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성시화의 열거름이 확실히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춘천의 지식문화사업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있어 지역경제 강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신문이 기독교의 소식과 신앙생활의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하

는데 큰 몫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시신문이 더욱 발전하여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선교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춘천의 성시화를 앞당길 수 있는 복음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시화운동의 열거가 지역 도처에 항상 가득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성시신문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창간 두 돌을 축하드립니다.

빛을 따라가는 길

여행상품안내

- | | |
|-----------|------------------|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 ○ 진세비스타이 | ○ 성지순례 |
| ○ 국내선 항공권 | ○ 국제항공권(B.S.I.P) |
| ○ 신혼여행 | ○ 해외 신혼여행 |
| ○ 호도관광 | ○ MBC문화탐방 |

- 출 발 일 : 2000년 11월 8일, 2001년 1월 26일 (※ 선착순 모집)
- 순례지역 : 이집트(시나이), 이스라엘, 로마
- 일 정 : 10박 11일
- 금 액 : 2,300,000원

- 산업시찰
- 전국 일차표 판매
- 전국 호텔·콘도 판매
- 도서지방 신품판매
- 여권 및 비자수속
- 여학연수/메나여행
- 백두산 동춘해리 데리집
- 금강산 관광 데리집

문의 및 예약처

성지순례사업부 (200-070)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37-5
홈페이지 : <http://www.maeiltour.co.kr>
전화 : (033)253-4567 FAX: (033)253-8575
전부이사 허 봉(춘천중앙교회 집사) H-P: 011-374-4562
일부자장 박준영 H-P: 017-372-8282

사설

교회의 하계 수련교육
실익은 있는가

급변하는 세상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을 여름철 신앙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산파를 쳐주며 특색 있는 신앙교육을 할 기회를 주었다.

교회와 사가 지경교회에 내린 어린이 여름수련학교 개강, 청소년 수련회 등 한수박은 시민들에게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훈련을 신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만금구(白金九金)는 경찰서 옆에 세워진 것보다 교회 한자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고 말한다. 전국에 오만한 교회와 일관적이며 신자가 있고 순천에 도 삼백오십여개 교회와 시민오백명의 신자로 수십배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부흥과 부패, 영부수는 늘어나 범죄자로 착고 넘치는 현실을 보면 교회와 사회는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일까? 오늘 교회는 빈곤하고 회회하는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일까? 빛과 소금이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옛이야기로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하계 동계수련회는 교회의 필수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여름철이면 각종세미나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찾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부흥, 가정의 평안, 사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등 신앙교육 훈련을 통해 대우력과 부패사회의 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1세기에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른 교육훈련과 그 내용을 실행하는 생활과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쓰러져가는 나라와 사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고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일제에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금주 금연 등 불신앙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 간디와 같은 철학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고 자기주적인 신앙교육훈련이 되지 않도록 진면 제검도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바른 교육 바른 생활 훈련을 통하여 나라와 교회 시민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성서대학 연구반 모집

대상	학제	시간	장소	인도	회비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2년 4학기제	일요일 (1)요일 1시간 (회원들과 의는 후 결정)	동원교회	정성문 목사	월 2만원 (간식비)
자격조건					접수
① 성서에 대해 한두문쯤 회의와 의심을 갖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람					TEL 256-7001
② 성서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기존의 교리에 강한 반발을 갖고 있으며 적어도 몇문에서 그런 오류를 찾아내신 만한 분					256-8877
③ 어떤 경우 성서의 일부 문맥이 왜 서로 다를까 하며 다른 곳을 한두 문대 찾아내신 분					E-mail ch5391@kornet.net
그리고 강한 의문을 어디서든 풀지 못하는 분					정성문 목사

정정기사

8월 15일자 본지2면의 감리교 전국남선교회 선교대회를 감리교 등부연회로 정정합니다.

교계단신

- **충청신성감리교회**(김정수 목사)는 9월2일 대성전에서 중교동부 찬양집회를 열었다.
- **충청중앙장로교회**(사공 정복 목사)는 9월3일 카페 "대강이만나"에서 청년부 주권으로 일일집회를 열고 라이브 공연을 가졌다.
- **충청남부문성장교회**(윤태호 목사)는 9월17일 오후 2시 강원고등학교 예술관에서 "찬양속에서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 고등부찬양집회를 개최한다.
- **충청평화장로교회**(한 국옥 목사)는 9월17일 1,2반신교회 헌신예배와 24일 청년부 헌신예배를 드린다. 2001년 1월중 약20일간 인도 지교회와 방문할 살림 제2차 단거선 교회를 모집한다. ☎ 018-374-5436 집성업 신교목사
- **충청중앙장로교회**(윤철중 목사)는 제10기 기도운 용사와 학교를 개강하고 9월18일부터 10월12일까지 교육한다.

성시화운동의 길잡이 되기를



김용배장로

소양장교회
충청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장

나는 요즘 춘천을 자랑하는데 서슴치 않을 것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춘천성시와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지금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성시화의 열화가 점점 열리며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고, 두번째는 오히려 더 힘 주어 말하고 보여드리는 성시신문의 진

국 최초 발행을 자랑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기관이나 교회 또는 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생적으로 4,000부 이상을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일은 관여해볼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가장 힘든 일을 묵묵히 실행하여 창간2주년을 맞이하는 신문으로써 능히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력하는 신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만드는 분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독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이 일의 한 부분이라도 받쳐들어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충청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시신문이 하나를 존귀히 성시하는 일에 크게 쓰여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충청교계소식

- ★ **충청지방(연제인 감리사)**은 9월4일 사면 한성교회에서 여성교회 연합예배와 교역자회의 및 사모회의, 여성교회 제석회를 열었다.
- ★ **제18회 동부연회 교역자연합회 및 지방별 배구대회** 기독교대안감리회 동부연회 부총신교단(단장 박길중 목사)에서는 9월4~7일까지 대안수도원에서 주동자 감독(마산합정교회)을 강사로 초청,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자 연합총회를 개최했으며 교역자간 친목도모를 위해 배구경기를 가졌다. 경기결과-철원동지방(1부)철원서교회, 동해, 삼척지방(공동3부)
- ★ **충청신우회**(김지경 회장)는 9월6일 정오 충청을 회령로 은혜비에서 이수형 목사(아름다운교회)를 모시고 장오예배를 드리고 직장선교와 복음화, 초교파적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와 친교시간을 가졌다.
- ★ **충청연방장로교회**(김정성 목사)는 9월9일 오후6시 학생회 주최로 중교동부 대성 "대전의 축제"를 개최했다.
- ★ **충청민교회**(양명환 목사)는 후원회 연봉리 청송아파트 입주를 축하하고 입주민의 편의제공과 복음전파를 위해 대형게시판 1개, 소형게시판 8개를 설치하였다.
- ★ **충청신우회 2분기 헌신예배**충청신우회(김지경 회장)는 오는 9월24일 오후7시 북방면 중화교회 회계중임교회(김영규 목사)에서 2분기 헌신예배를 드리며 모범행 2명에게 장학금 각 100,000원을 전달하게 된다.

이성순 명예기자단 충청지부장

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축하드리며!

충청성시화를 촉진하기 위한 성시신문의 창간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충청성시신문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성시화는 일 개인이나 소수의 바램이 아니요, 모든



박인관 목사

충청연방장로교회

충청의 하나인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시화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반드시 최고의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일에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시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성시신문을 만들어 보급하며 집회들을 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름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는 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리를 꼬부리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던 중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시고 "관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고 외치면서 들을 가져다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렵도다 이 곳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 28:17)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담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를 바로 이 장소의 이름인 "두스"를 "벧엘"이라고 바꾸었다고 결론짓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푸스를 벧엘로 바꾸는 일, 곧 성시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된 후 벧엘 불후의 명작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며 밝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룩한 도성으로 삼

기 위해 구체적인 일을 시행하였습니까. 벧엘은 영국 전역을 밭을 타고 다니며 성교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어린이를 세우면서 영국 전역에 퍼뜨리지 않고 영적혁명을 일으키는 비바람을 조성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평신도들의 열정은 참으로 기하고 소중하나 목회자와 교회들 통한 성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연합회, 교역자연합회와 단합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나아가 성시화는 집회 몇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문학, 예술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누더기 가는 가정, 가치를 잃어버린 문화, 복귀하기 어려운 파괴된 환경... 각기 전문가들과 목회자, 평신도가 풀고 구구 배치되어 행동과 이어져 하고 이 때에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쏟아부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남게를 달아주는 일이 바로 성시신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한번 성시신문의 창간을 감사드립니다. 성시화를 위하여 대변자로 홍보자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는 성시신문을 우리 하나에서 천히 주장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리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법 개정

8월24일 오후2시 서울 분당 만나교회에서 감리교 임법총회 대의원 525명이 모여 감리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법을 개정하였다. 헌법법은 총대원의 3분의1이 감독후보 3명을 반드시 추천하여 6차 투표까지 하게 되어있는 것을 총대 3분의1이 인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즉석투표 결과, "총대 전원이 1인의 후보를 기표하여 다득점자 3명을 감독후보로 정한 후, 2차투표에서 3분의2이상 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특성은 당초 6번의 투표를 세번 이내로 투표하는 것이며 총대 전원이 감독 후보 선출인이 되는 직접 선거제이다.

축, 성시신문창간 2주년

“새일을 행하는 남선교회”

(사43:19)

2000년 주요사업

- 평신도활동의 활성화
- 평신도지도자 교육강화
- 캄보디아선교와 교회부흥
- 남선교회세계연합활동참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ethodist Men
10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평화문빌딩(감리회관) 16층
전국남선교회 ☎ (02)399-3947/Fax (02)399-4350
회사무실 ☎ 원주시 태장2동 2156번지
(033)735-4300

전국연합회위원장

(동부연회소속임원중부장이사)



부회장 장구봉 장로



부회장 함영주 장로



부회장 장석찬 장로



부회장 이희규 장로



부회장 정계환 장로



신교현금총무 김범기 장로



신학연구위원장 김준호 장로



홍보부장 김기태 장로



회장 이기중 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현)
세계감리교남선교회부회장(현)
한국기독교평신도단체협의회부회장(현)
원주 신촌감리교회 사무장로(현)

총무 권승달 장로
도시출판 보이사대표
서울은평교회 사무장로감사 김형재 장로
영월직설교회시무회계 유재우 장로
원주제일교회시무

성시화운동의 견인자 역할을 하는 신문이 되기를!



유근치 회장

성시화지도모임 총무
순복음춘천교회 안수집사
강원대 원예학과 교수

춘천성시신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간되어 2주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발간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사적인 주님께 감사하며 그 동안 기쁨을 같이 놓으신 김민진과 제정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와 선교단체, 개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노고에 대해 격려와 찬사를 드린다.

신문이 발간되기 위하여 지면을 채운 기사와 이를 편집하는 전문인력, 그리고 이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며, 발간된 후에도 독자를 신장하여 배포하기까지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 많은 노고를 상상하기 어렵다. 모든 여건이 구비되고 풍족한 상태에서 발간된다면 어려움이 적겠지만 모든 것이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신문이고 보면 그 가치가 더욱 귀하고 보람된 일이며,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시신문 발간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

에 거듭 찬사를 드린다. 본인은 세상 신문에 먼저 눈을 돌리다기도 성시신문 제작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고 치음부터 끝까지 읽곤 한다.

특히 춘천 성시화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도시 성시화운동의 발생지도 모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역을 전국 각 도시로 전파하고 모델화 해 나가는데 성시신문이 큰 역할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가는 기대가 지대하다.

성시신문은 세상에서 발간되는 신문과 같이 필적을 행해서 세상을 제압하거나 파도나 부정을 색출하는데 급급한 신문이 아니며, 세상의 크고 작은 소식을 남보다 빨리 전해야 하는 신문도 아니다. 성시신문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춘천을 복음화하여 거룩한 도성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이 운동이 전국으로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을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신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신도를 신축하고 성도를 모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못지 않게 참으로 강하고 고귀한 사역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반영되어 더욱 알찬 성시신문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독자가 읽고 은혜가 되는 설교, 간증 등의 칼럼을 상설하여 성도는 더 뜨거워지고 불신자에게는 감동을 주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고정된 란이 필요하며 둘째, 신문 발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의 특별한금이나 소수의 후원자에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교회 순방예배 때나 전도 집회장에서 성시운동이나 성시신문의 발간을 도울 교회나 개인 후원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면의 내용이 화보이거나 문장이거나 모두 나름대로 뜻이 있고 효율성이 다르므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한계가 불분명하지만 화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신문으로서의 기능보다 화보로서의 인상이 앞설 우려가 있다.

넷째,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이지만 성시신문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하여 작고 큰 소식을 전한다. 성시화 사역과 관계가 없는 특정한 소식이나 전례적인 독자 중에는 다소 거부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성시신문은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시화 운동의 확산을 그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성시화운동본부 결성된 지역에 성시신문을 송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구독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어 성시화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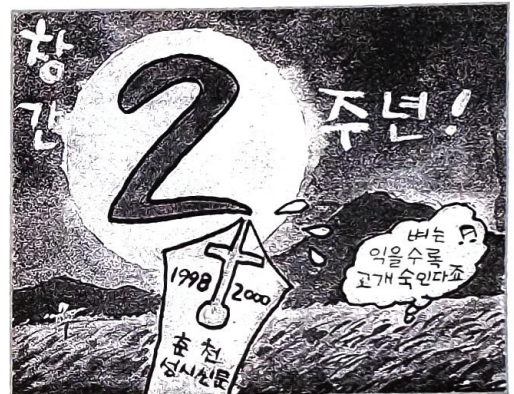
그러나 성시신문은 우리들이 바라고 지향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작을 담당한 사역자만이 아니라 성시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지도로 동참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춘천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좋은 신문으로 발전을 기원한다.

국제선교훈련원 선교학교 · 제자성경대학 모집안내

선교정팀훈련학교(제2기)		제자성경대학(2학기)
과 정	9월19일~12월12일(1주) 매주 화요일 오후7시~10시(주3시간)	9월18일 오후7시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학기당 12주(총 4학기2년과정)
장 소	국제선교훈련원(IMTI)203호	국제선교훈련원(IMTI) 순호재를
대 상	교회선교부실무자/선교사후보생/선교관심자	성경에 관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정 원	30명	50명
참가비	15만원(관려지체12만원)	5만원(교재비 별도)
교과목	미전도종족과 선교의 성경적기초, 신가나나 전략, 종족 선교연구의 이론, 선교정팀의 성격과 과정, 종족프로파일 소개, 정보의 네트워크, 팀워크, 현지조사 방법 1,2-인터뷰실습, 전략도출,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선교동원이론, 동원자료 작성법, 종족임업의 개념과 과정, 국내실습보고	① 출애굽기 ② 개인성경공부(PBS) ③ 요한복음 ④ 사도행전
훈련특징	훈련 이후, 선교정팀훈련 실습 참가자격 및 단기교육 파송 자격	
신 청	☎ 033)243-6701-4 / 011-243-3192 / FAX : 033)243-6705 Http://www.jdm.or.kr 예수제자운동부 부설 국제선교훈련원(IMTI)	

聖市漫評

김준배



한가위 달처럼 영그는 감사의 마음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 교사대학 개강

TCE교사대학 (1단계)

일시	장소	등록금	대상	과목
9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주간	베드로병원 내 베드로선교회 4층 문화 세미나실	7만원 (식사비 포함)	○ 교회학교 교사 중 더 좋은 어린이구원상담 ○ 교사가 되길 원하는 분 ○ 어린이전도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분	① 성경공부와 준비와 제시 ② 교사의 중요성 ③ 어린이구원상담 ④ 성구입양 ⑤ 글쓰는 법 ⑥ 이웃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⑦ 어린이 기도훈련 ⑧ 음악지도 ⑨ 사적지 지식전달 ⑩ 새로 믿게 된 어린이 격려 ⑪ 훈육

가을 새소식반(Good News Club) 주간강습회

일시	장소	등록금&교재비	교재
9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7주간	문화 세미나실	총8만원 ※ 등록금 2만원 ※ 교재비 6만원	특강/어린이양육, 공회/로마서·요셉 신교사이야기/월리담개리, 찬송·율동·요절·복습개입

가까운 시일내에 화천, 가평, 철원지역에서도 개강할 예정이오니 지역교회 교사여러분과 어린이전도, 구원에 뜻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처 : (033)253-1443/016-365-1415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동부연회 여성교회연합회 선교대회개최 - 선교의 능력받고 흠어져 전하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여성교회(회장 김순배장로)연합회 선교대회가 지난 9월5일 춘천석사감리교회(임택창목사 사무)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1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부 찬양과경배, 2부 신교대회개회, 3부 찬양과 율동, 4부 특강순사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때에는 동부연회 김명기장로, 김창수장로, 임택창목사, 김병복목사, 박상혁목사, 원기배목사, 양기태목사, 박인관목사가 참석하였고 동부연회 여자목사 전원이 참석하여 성찬식을 보좌하였다. 전국신교회 회장 이기

중장로, 동부연회 장구봉회장, 유태희연회 회장로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하여 격려했다. 김명기 장로는 특강을 통해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의 절실성을 강조하였고 임택창목사는 초대교회 여성교회원들의 뜨거운 선교열을 회고하고자 하고하였다. 식사준비는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 남산교회원들의 교통봉사, 여성교회원들의 안내, 식사준비 등 정성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므로 모든 선교회원들이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 떠났다.

동부연회 기독교실업인 선교회 월례회 개최

감리회 동부연회·실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의 모임체인 실업인선교회 2년째 제3차 월례회가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 강릉시 성산면소재 대관령 박물관에서 회원부부 30명이 모여 개최하였으며 회장 정계항(원성교회)장로와 김기태총무(춘천중앙교회)의 진행으로 예배, 회의, 친교행사와 문화유산 탐방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으로 실업인회보를 발간하고 기독교보존을 위하여 기도했다.

춘천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 명 위 식

표어 :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개인·가족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을 돕습니다.
행복의 가정학교 등 가정사역을 지향합니다.

목회자 프로필

충남 청양출생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춘천지방선교연합회 및 강원대학교 기독교교회 지도목사

시인, 한국문인협회회원, 강원도 총동맹회 이사

교회주소 춘천시 퇴계동 79번지 퇴계타운 4F (우시정 뒤)
목사관 ☎ (033) 262-2791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앞에 비취게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회 장 김용배 장로
수석부회장 민병업 장로
부 회 장 박상운 민경옥 박무일장로
총 무 진상용 권사
협동총무 김철수 장로 이동우 권사
감 사 한성옥 권사 김용일 안수집사

TEL. 258-5221 김용배 회장 / 250-7110 진상용 총무

(합) 백양건설 토목건축

대표 강 원 영

춘천시 약사동 155번지
전화 (033)253-7447/251-5754

성시신문 창간 3년째를 맞으며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신문본부장)

춘천성시신문이 발행된지도 어느덧 2년을 넘어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여러 분의 헌신과 성시신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성시신문의 탄생은 비록 몇 4페이지지만 발행하고 있어도 이 신문을 통해서 춘천의 성시운동이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성시운동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72년 춘천의 몇몇 평신도들에 의해 태어난 성시운동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기독교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96년 춘천에 성시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발족시켰으며 이제 대한 창주 대구 부산 등지와 이 밖에도 전국 도처에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춘천성시운동은 크게 중흥시킨 전술대·양인원 장로님의 노고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공직에 계시면서 가신 곳

마다 성시운동의 불길을 달렸으며 그로써 복음화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적극 협력해서 성시운동을 통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직장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짙어가는 성전을 짙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두운 땅을 밝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불과 소수의 무리에게 의해 시작되었지만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오늘날에 이르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시운동은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영혼구원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의한 새로운 사회개혁을 이룩하려는 운동이며 이를 위해 기도와 성령을 힘입는 운동입니다. 도시전체가 사회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문화가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사회로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공간이 모든 복음화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성시신문 창간 3년째를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성시운동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성시신문이 이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충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와 비전을 선포하길”

—춘천성시신문 2주년 기념—



이 기 중 장로

기독교대한교단교회연합회 회장(현) 세계감리교남신교회 부회장 한국기독교교회신도연합회 부회장 원주신촌감리교회 사무장

성시신문 창간 2주년 기념호를 기독교대한교단의 남신교회 전국연합회 40만 회원들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올 수 없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삶에 전념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미지에 새천년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하얀 백지에 연필을 놓은 것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얀 줄이기에 춘천성시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성시신문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창간 2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축하를 아끼지

수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룩하신 삶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장미도 또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장미도 합니다.

이 만남에는 신념과 자기표현이 있으며 사랑과 정의가 있고 친구와 반역자가 있고 삶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에 섭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를 밝히는 성시신문은 구국하는 사람들에게 눈과 귀에 역할을 담당하는 정의와 진실과 공평과 비전을... 공평과 진실과 희망과 구원에 확신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지로, 어두운 시대에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신문이 되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신문은 구국함으로 구원에 확신을 다짐하고 성시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나날이 늘어나서 어두운 시대에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단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나날이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 더하여져서 발행부가 늘어나고 품질에 도움을 주는 독자들이 많아져서 활간에서 주간으로 주간에서 일간지로 발전할 것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며 격려에 말씀드립니다.

제일성결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드려

—젊은 힘 모아 새성전 기성인 교회—

—김인환 목사, 손광호 집사 장로장로님들 함께—



춘천제일성결교회 (담당 박상철 목사)는 춘천시 석사동 강원도여성회관 빌딩 후면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9월 17

일 오후 4시 입당예배와 김인환 목사, 손광호 집사의 장로장로님들을 모신다.

대지 150평에 건평 150평(1.2층)의 새성전 건축에는 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젊은 사명자들이 힘을 모아 이룬 것이다. 아

직도 1억5천만원에 맞서 남았으며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박목사는 춘천교육대학생 전도를 목회방식으로 세우고 수년간 춘천교대 앞쪽에 교회를 설립해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 교사로 나갈 교대생들을 선교사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명이 근무자로 파송받고 학생들 전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육중에 있는 학생들도 수십명이다.

박목사는 춘천지역 사역에 만족하지 않고 춘천을 본부로 전국교육대학생들을 양육 파송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목회자의 뜻을 밝혔다.

춘천제일교회 033)261-3601 / 262-6881 / 017-374-3601

국내의 유명강사 특강데이프 무료보급

기독교선업인 강연연합회(회장 송준기)는 한국기독교선업인전국대회를 통해 최창근 명예회장, 오경원 목사, 로렌스 님을 초청하여 성경공부 및 특강에 관한 강연데이프를 대량 구입하여 강원지역의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 033)257-4532 / FAX 033)241-4532

비전을 가진 선구자의 사명을

—창간 2주년을 맞이하여—



이 범 한 안수집사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할렐루야!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시신문 창간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아니 수확의 계절과 더불어 우리 춘천성시신문이 그간 복음사역에 공헌한 일과를 거듭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성시신문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성시운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애쓰시는 조남진 장로님, 조준환 목사님, 이학규 장로님 그리고 전후대 춘천교단과 양인원 장로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력하여 주신 재능 목사님들을 비롯한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춘천성시신문은 지난 2년간의 앞날 결실을 바탕으로 선구자적인 사

명을 감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은 참으로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윤리적 혼란, 가치관의 변화, 물질주의 등 인간의 정신세계가 황폐화 되어 하나님과의 정밀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춘천성시운동이 보여주듯이 초교파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한국교회의 막대한 벽을 열고 초교파적인 하나된 모습으로 거듭나서 기독교의 참모습의 향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선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나갈 때 한층 더 나은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성시신문은 오늘날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을 가진 선구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사가 신지나 예레미야 신지나와 같이 온갖 박해와 고난속에서도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명목으로 믿어있도록 된 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시운동의 예루살렘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드온캠프 총무 심인섭 장로 선임



심 인 섭 장로
춘천신성교회 사무
소양중학교 교장

목요일 조간기도회와 학교방문, 교회방문, 교도소, 소년원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성경을 배포하는 등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모두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신교봉사단이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24교회순방, 성서현금 1천9백만원으로 성서 5만6천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01년도 임원

회장 조재현(남춘천감리교회:유임)
부회장 김태권(동부장로교회:유임)
총무 심인섭(신성감리교회:신임)
재정부장 최준인(순복음춘천교회:신임)
신앙부장 이호준(우두감리교회:유임)
선서부장 유태희(제일감리교회:유임)
간증부장 이명규(석사감리교회:신임)
교회부장 마철규(제일장로교회:신임)
기금부장 김기태(중앙감리교회:유임)
선서부장 이학규(석사감리교회:유임)
회계부장 이명일(석사감리교회:유임)
부인회부장 오정희(동부장로교회:유임)
부회장 김병숙(석사감리교회:유임)
총무 한복희(석사감리교회:유임)

한국기독교선업인회 춘천점프는 8월31일 석가탄신에서 기드온 전국이사 김원식(강동성결교회)장로 임희아래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무로 춘천신성교회 사무장이며, 소양중학교 교장인 심인섭장로를 선임하였다. 신임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이번 총회에서는 최준인(제정), 이명규(간증), 마철규(교회)부장을 새로 선임하였다.

기드온협회 춘천점프 회원 20명이 매주

춘천성시신문 창간2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무세장
강원농원



대표 임 회 방 안수집사

조경공사 · 각종종묘 · 진다 · 자연석공급

강원농원조경공사 ☎ 033-254-8986 / 254-5930

춘천시 근화동 266-6번지 시외버스터미널 옆

기독교법조인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

—전국 도시성서지화, 믿음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로고스”는 9월 18일 오후 6시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조용기 목사)강남성전에서 설립예배를 드린다.

동법인은 전국 도시성서화운동에 헌신을 기울이고 있는 양인평, 전용대 변호사 등 12명의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함께 믿음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전국성서화운동에 큰 나날이 기대된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되어 모든 법률 분야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로고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다.

대표 변호사 양인평 이홍길 전용대
구성원 변호사 권순욱 송기영 백현기 조배숙 오세창 임영수 이상근
권오영 여정규

로고스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역삼빌딩 5F
전화 : 02)2188-1000 / 02)591-7799
팩스 : 02)2188-1090 / 02)591-2654
☎ 기업연락, 상담, 화환 사절합니다.